

신태용호 멕시코전서 운명 갈린다



‘16강 진출 희망과 조별리그 탈락 운명이 멕시코전에 달렸다.’

신태용 감독

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웨덴에 0-1로 패하면서 멕시코와 2차전에서 벼랑 끝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1패를 안은 상황이기에 때문에 24일(한국시간) 오전 0시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패한다면 2전 전패로 일찌감치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수 있다.

16강 진출 경우의 수는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멕시코에도 진다면 3전 전패로 탈락할 수도 있다.

2전 전패로 탈락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제외하고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8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았던 2014년 브라질 대회까지 3전 전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건 딱 한 차례 있었다.

바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다. 당시 이회택 감독이 지휘한 한국 대표팀은 벨기에(0-2 패)와 스페인(1-3 패), 우루과이(0-1 패)에 차례로 무릎을 꿇었다.

4강 진출 신화를 이뤘던 한일 대회와 원정 16강 쾌거를 이룬 2010년 남아프

스웨덴전 0-1 패배로 험난해진 16강행 2차전 지면 자동탈락 비겨도 장담 못해 멕시코 꺾으면 1승1패 경우의 수 희망

리카공화국 대회를 빼고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다른 대회는 1무 2패가 세 번(1986년 멕시코 대회, 1998년 프랑스 대회, 2014년 브라질 대회)으로 가장 많았다.

또 1994년 미국 대회에선 2무 1패, 2006년 독일 대회에선 1승 1무 1패로 조별리그 판문을 넘지 못했다.

신태용 감독이 멕시코에 덜미를 잡힌다면 3전 전패의 1990년 이탈리아 대회와 전철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3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꺾을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신태용 감독도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스웨덴과 멕시코를 상대로 1승 1무 또는 2승을 16강 진출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태용 감독이 멕시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독일이 2차전에서 스웨덴을 꺾는다는 네 팀이 모두 1승 1패로 동률이 된다.

3전 전승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독일이 1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덜미를 잡히면서 예상은 어긋났다. 독일이 꺾

관적 전력상 스웨덴에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만약 패한다면 지난 대회 우승팀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최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신태용호로서는 꺼져가는 16강 진출의 불씨를 살리려면 멕시코를 잡고 독일과 최종전에서 승부를 겨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

하지만 멕시코는 북중미 예선을 1위(6승 3무 1패)로 통과한 강팀인 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로 한국(57위)보다 무려 42계단이 높다.

한국과 역대 A매치 전적에서도 6승 2무 4패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 앞선 여섯 차례 본선에서는 한 번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멕시코전 승리 기적’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신태용 감독은 스웨덴전 패배 후 “그래도 공은 동글다. 멕시코가 버거운 상대이지만 잘 준비하겠다”며 멕시코전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한국-스웨덴전을 중계했던 박지성 SBS 해설위원도 멕시코전을 대비한

순위	팀	승	무	패	득/실	승점
1	멕시코	1	0	0	1/0	3
2	스웨덴	1	0	0	1/0	3
3	독일	0	0	1	0/1	0
4	한국	0	0	1	0/1	0

6월 18일 | 독일 0 : 1 멕시코
스웨덴 1 : 0 한국

조언을 내놨다. 박 해설위원은 “멕시코는 한국을 상대로 독일전과는 전혀 다른 전술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멕시코의 빠르고 거친 전방 압박을 견뎌내고, 그걸 넘어서면 수비벽이 떨어지는 만큼 빠르고 공격적인 우리 선수들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수비진이 앞선 평가전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불안감을 잠재울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멕시코의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총총하게 수비라인을 짜고, 1대 1 상황에서 농축할 때 주변 선수들이 뒷공간을 막아낼 수 있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일까지 목포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일본 고치현 독립리그 야구단 고치 파이팅 독스.

전남도 해외 스포츠교류 빛 발한다

일본 고치현 야구팀 등 전남 전지훈련 잇따라

해외 스포츠팀들이 잇따라 전지훈련에 나서는데 전남도의 해외 스포츠교류가 빛을 발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자매도시인 일본 고치현의 독립리그 야구단 ‘고치 파이팅 독스’가 이날까지 1주일간 목포시 일원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다.

선수단은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인 고다노리히로 감독을 중심으로 코치 3명, 선수 22명, 스태프 5명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한국출신 선수도 2명 포함됐다.

지난 14일 입국한 파이팅 독스는 일본 고치현을 연고지로 한 독립야구단으로 2005년 원년대회 우승 후 매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일본 청소년 야구교실과 봉사활동으로 일본에서 명성이 있는 야구단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과 5월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해 전남을 찾은 파이팅 독스 관계자들에게 뛰어난 전남의 야구장,

기후, 숙박 및 음식 등을 설명해 이번 전지훈련을 유지했다.

중국 산둥성과 칭다오시의 근대5종 선수단 25명도 전남에서 전지훈련을 진행중이며, 오는 7월 말에는 제5회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기간 중 저장성 청소년 30여명을 초청해 청소년 친선 바둑교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남지역 초·중·고 배드민턴 선수단 30명이 중국 저장성청의 초청을 받아 친선경기를 펼친다.

방축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면 이들이 머무는 동안 지역 인지도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강팀과 자매도시, 해외 판촉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나홀로 선방 골키퍼 조현우(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8일 밤 러시아 니즈니노브고로드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공중볼을 낚아채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 8승4무1패로 ‘절대 강세’ ... 남미 부진

아시아는 이란이 8년 만에 1승...아프리카는 4전 전패

‘유럽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선 유럽팀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관례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소속 국가들은 현지 날짜로 18일에 열린 세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다.

F조 스웨덴이 한국을 1-0으로 꺾었고, G조의 잉글랜드와 벨기에는 각각 튀니지와 파나마를 물리치고 승점 3을 가져갔다.

H조의 폴란드가 20일 세네갈과 첫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19일까지 8승 4무 1패의 ‘절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진 경기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FIFA 랭킹 1위 독일이 멕시코에 당한 0-1 패배다.

네 차례 비긴 경기 중 2 무승부로 기록된 포르투갈과 스페인전은 지금까지 열린 조별리그 경기 가운데 최고의 명승부로 꼽힐 정도로 내용 면에서도 알찼다.

당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헤트릭을 만들어냈고 ‘무적함대’로 불리는 스페인은 0-1, 1-2에서도 끈질기게 따라붙다가 3-2로 역전까지 하는 등 결승전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20차례 월드컵 가운데 유럽 대륙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유럽 국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남미 국가가 우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예외는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한 것과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독일이 정상에 오른 경우뿐이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남미 팀들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남미 축구를 양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모두 1차전에서 무승부에 그쳤다.

브라질은 스위스, 아르헨티나는 아

이슬란드 등 유럽의 ‘복병’ 수준의 팀들과 나란히 1-1로 비겼다.

우루과이만 이집트를 상대로 후반 막판에 한 골을 넣어 1-0으로 가까스로 이겼고, 페루는 덴마크에 0-1로 졌다.

남미에서는 콜롬비아가 일본과 1차전을 앞두고 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승도 따내지 못하고 3무 9패에 그쳤던 아시아 축구연맹(AFC)은 이란이 모로코를 1-0으로 잡아내며 8년 만에 승리를 수확했다.

그러나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는 모두 1차전에서 패하면서 여전히 세계 수준과는 격차를 보인다.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아, 튀니지가 모두 1차전에서 패했다. 세네갈이 폴란드와 1차전을 남긴 상황이다. /연합뉴스

최민선 대통령기 양궁 5관왕 명중

〈광주시청〉

개인·단체전 우승...광주시체육회 남자단체 은메달

광주시청 최민선(28·사진)이 제36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양궁대회 5관왕에 올랐다.

최민선은 19일 광주시청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 리커브 일반부 개인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단체전에서 광주시청이 우승하면서 5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선은 지난 17일 50m, 60m, 70m에서 모두 1위에 올라 금메달 3개를 기록했고 이날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최민선은 개인전에서 팀 선배이자 런던올림픽 2관왕인 기보배(30)를 8강에서 6-4로 제치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하시연(예천군청)을 7-1로 제압하고 오른 결승 상대는 같은 팀 동료 이소현. 하지만 최민선이 7-1로 승리하면서 금메달을 품었고, 이소현은 은메달을 차지했다.

일반부 여자 단체전에서도 기보배, 이특영, 최민선, 김소연이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이 ‘천하무적’이었다.

광주시청은 대전에 5-1로 승리한 뒤 준결승에서 제주를 상대로 6-0으로

가볍게 승리했다. 결승전에서는 김은정, 심예지, 윤진, 김수린이 나선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6-2로 승리하면서 사상대 가장 높은 곳을 독차지했다.

남자 리커브 단체전에서는 광주시체육회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승운, 이현정, 임지완, 정일기가 나선 광주시체육회는 충남을 5-3으로 꺾은 뒤 울산에 5-4로 승리, 준결승에 올랐다. 제주를 5-1로 제치고 결승에 오른 광주는 아쉽게 결승에서 경기 코오롱엑스텐보이즈에 0-6으로 패해 은메달을 기록했다.

최진화 기자

전남체전 참가자격·경기방식 변경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의견 수렴

전라남도민의 스포츠 한마당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 자격과 경기방식이 변경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체육회는 19일 2019년도 전남체전 개최지인 보성군 국민체육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57회 전남체전 운영개선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출생지 참가자격 미비여를 참가 허용으로 개선해 군단위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선수 구성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선수여건 확대를 위해 현행 타시·도 전입 2년 이내 전입 1년 기간을 타시·도에서 도내로의 전입 1년

으로 완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

동호인 활성화 종목인 배구의 여자부 신설, 배드민턴 종목의 경기방식 변경,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 육성 차원에서 씨름종목의 초·중등부 신설 의견도 나왔다.

선수등록 전산화, 주말 개최에 따른 숙박비 인상요구 근절 대책 마련, 전남체전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도 제기됐다.

전남체육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에 대해 내달 시·군체육회 사무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8월 중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 9월 중 전라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의 최종 확정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최진화 기자